역대 대통령 양계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

1960년 이후 양계업이 태동, 현재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 왔다. 따라서 본고는 월간양계에 소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 중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제18대 대선이 끝나면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과연 과거에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양계(축산) 분야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었을까?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알아본다.

박정희 대통령 한국 카길사 방문

1970년 5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구로동 수출공업단지를 둘러보고 수원에 있는 한국카길사를 방문, 제조공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값싼 배합사료의 생산으로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것이 직접적인 양계업계의 방문은 아니지만 우리업계와 관련된 대통령의 첫 방문으로 기록되어 있다.(1970년 7월호)

노태우 대통령 축산업계 대표와 면담

본회 정태원 회장을 비롯한 축산인 40여명은 1989년 6월 14일 청와대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해 면담을 했다. 축산업계에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만나 현안문제를 놓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도기적인 입장에 처한 축산업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1989년 7월호)

김영삼 대통령 (주)하림 방문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10월 16일 허신행 농림부 장관을 대동하여 전북 익산에 위치한 육계계열화 업체인 (주)하림(대표 김홍국)을 방문, 자동화시설을 갖춘 전 도계라인과 아울러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에서 포장 전과정을 시찰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김대통령은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국내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계열화 사업이 크게 신장하고 양계산업의 발달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방문은 업계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1993년 11월호)